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나주 판타지아' 개최

맑은 목소리와 풍성한 상상력이 어우러진 가을, 특별한 무대
11월 21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강당에서 무료 관람 진행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의 순수한 목소리로 가을의 감성을 전할 제9회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진행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1일 오후 7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강당에서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나주 판타지아'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정기연주회는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음악적 감수성을 담아낸 다양한 무대로 꾸며지며 합창단의 순수한 목소리와 풍성한 상상력이 어우러지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뜻한 하모니로 시민들의 마음을 물들일 전망이다.

무대에는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이앤아이 앙상블이 함께 출연해 맑고 청아한 합창의 감동과 생동감 넘치는 연주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치키 차가 조코 슈, 바람의 빛깔 등 관객에게 친숙한 곡들을 합창단 특유의 조화로운 하모니로 들려줄 전망이다.

2부에서는 이앤아이 앙상블의 특별 무대가 이어지며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합창단과의 풍성한 협연을 완성한다.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연주회와 교류공연뿐 아니라 지역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어린이와 청소년

의 예술적 재능을 키우는 문화예술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제21회 부산국제합창제에서 청소년 부문 3위와 심사위원단 금상을 수상해 올해 부산영화의전당과 벡스코에서 열린 전체경연 참가팀 중 유일한 국내 상위 입상 사례로 주목받았다.

박의영 소년소녀합창단 예술감독은 "이번 정기연주회는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자리"라며 "맑은 목소리로 시민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은 나주의 미래를 밝히는 문화사절단으로 아이들의 목소리 속에는 지역



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다"며 "이번 공연이 시민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예매 없이 공연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나주/이명열 기자

보성군 채동선 실내악단, 창작 액터뮤직 'Song of 동물음악대'

11월 27일 ~ 28일 채동선음악당서 총 3회 공연

보성군은 오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채동선실내악단의 창작 액터뮤직(Actor Music) 작품 『Song of 동물음악대』가 채동선음악당에서 총 3회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11월 27일 오후 2시 30분과 7시 30분, 11월 28일 오후 7시 30분, 별교음 채동선음악당에서 진행된다.

『Song of 동물음악대』는 보성 출신 민족 작곡가 채동선의 음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지역 창작 프로젝트로, 채동선실내악단이 전담을 기반으로 직접 기획·제작한 작품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의 후원으로 제작돼 지역 연주자 중심의 '문화자립형 창작 예술'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작품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와 한국 작곡가 이영조의 『동물음악대』를 모티브로 삼아, 서양 클래식의 구조미와 한국적 정서를 결합해 만든 창작 음악극이다.

전쟁과 파괴가 없는 '평화의 나라'를 찾아 나선 동물들의 여정을 통해 인간 사회



의 갈등, 자연과의 공존, 예술의 치유력이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Song of 동물음악대』는 배우가 아닌 전문 연주자들이 직접 연주와 연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다. 연주자들은 악기, 몸짓, 표정 등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 생명과 희망의 서사를 무대 위에서 구현하며, 관객은 이를 통해 예술이 지닌 생동감과 힘을 보다 깊이 체험할 수 있다.
보성/김운기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에 전국의 호남가 명창(名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국악 축제가 펼쳐진다.

함평군은 14일 "사단법인 호남가우리소리보존회(이사장 박문식)가 오는 22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2025 제24회 전국 호남가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악 정창업 선생의 고향이자 판소리 '호남가'의 발신지로 알려진 함평에서 열리는 이번 경연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음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호남가의 첫머리가 '함평천지'로 시작하는 만큼, 이번 경연대회는 함평만의 문화적 정체성과 소리의 뿌리를 되새기는

'함평천지'에서 제24회 전국 호남가 국악경연대회 열린다

(사)호남가우리소리보존회, 20일까지 대회 참가 접수

의미가 더욱 깊다. 경연에는 판소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고령부(10분) ▲신인부(10분) ▲일반부(12분) ▲명창부(15분)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심사는 고령부와 신인부는 단심제로, 일반부와 명창부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 순위를 가리며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도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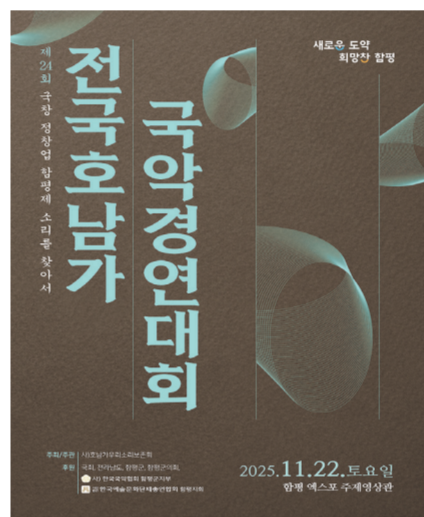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 국회의장 상장과 상금 300만 원, 일반부 대상 수상자에게 국회의장 상장과 상금 100만 원,

신인부·고령부 대상 수상자에게 전라남도지사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 기한은 11월 20일까지이며, 참가신청서와 소명판 사진 1매를 함평군민복지회관 1층 (사)호남가우리소리보존회 사무실(함평읍 남일길 52) 또는 전자우편(honanga@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호남가우리소리보존회(☎010-6462-2911)로 문의하면 된다.

박문식 호남가우리소리보존회 이사장은 "판소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



해 전통음악의 가치를 함께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완도군, 연말 뮤지컬, 클래식 등 문화 공연 풍성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 다양한 공연 마련

완도군은 군민들이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11월 26일에는 '꼬마 버스 타요-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지방이 대소동' 뮤지컬 공연을 완도문화예술

의전당에서 선보이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19일 오후 1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12월 3일에는 세계적 명성의 '뉴욕 필하모닉 스트링 파르렛' 초청 공연이 예정돼 있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 세계적인 클래식 연주 단체 공연을 유치하는 사례는 드물어 완도군의 문화 예술 기획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완도/장선우 기자

12월 31일에는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가 군민들을 만난다.

이흥렬, 이윤미 등 유명 배우가 출연,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군은 그동안 군민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문화누리카드 이용 시 관람료를 대폭 할인해 문화 소외 계층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왔다.
완도/장선우 기자

강진 다산박물관이 '다산과 강진차 : 비견 뒤 새 찾아 피어나니' 특별전을 지난 13일 군민들의 호응 속에 개막했다.

이날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군의회 서순선 의장과 의원,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김주웅 의원, 강진교육지원청 운영섭 교육장, 운영희 해남읍씨대중회장 등 비롯해 관내 기관단체장 및 문화관광해설사,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특별전은 조선 후기 차 문화의 부

다산박물관 '다산과 강진차' 특별전 개막 성황

전시회 내년 3월15일까지... '다산계첩' 최초 공개 눈길

흥을 이끈 다산 정약용과 강진의 차 문화를 조명하는 자리로, 정약용의 차 생활과 강진 차를 소개해 지역민들과 다산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다산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차향의 여운을 선사했다.

특히, 지난 6월 박물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구입한 '다산계첩'을 처음으로 공개

해 큰 관심을 모았으며, 다산계의 내용을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북 형태로 구현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차 퍼포먼스와 다산계의 맥을 잇는 강진 차 시음 행사도 마련돼 개막식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특별전을 통

해 다산이 강진에서 펼친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잊혀진 조선의 차 문화를 새롭게 일으켰음을 널리 알리고 강진 차와 그 역사상을 조명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산 정약용과 강진의 역사·문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062-525-9775

국민 내로남 모르는 농어촌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지

금이 있습니다

여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기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